

‘월 1천만원’ 사립유치원장 급여 공개 “개인정보 유출” vs “국민 알 권리”

유치원연합회, 교육단체 상대 ‘비밀 누설’ 등 손해배상 청구 추진
교육단체 “부적절한 행태 공개... 시교육청 제보자 보호 안해” 비난
시교육청 “감사자료 논란 당혹... 합리적 급여체계 운영 권고했다”

광주 교육단체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광주지회(유치원연합회) 측이 사립유치원 원장 급여 공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유치원연합회 측은 광주 한 교육단체가 제기한 ‘일부 사립유치원장 1000만원 이상 급여’ 공개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유치원 원장 급여 등이 공개됐다는 이유다. 유치원연합회는 9일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 교육단체가 일부 사립유치원장 급여를 공개해 학부모의 인식이 어긋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시교육청과 교육단체를 비밀누설·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계획하고 있다. 이 단체는 “사립유치원장의 급여 등은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통해 보고되고 있지만 개인정보이며 시교육청 감사자료도 규정에 따

라 외부 비공개 서약서까지 작성하는데 누설됐다”며 “시교육청이 정보를 제공했고 교육단체가 이를 사립유치원이 정부 예산을 급여로 많이 가져가고 있는 것처럼 호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단체가 사립유치원의 문제를 다루면서 높은 급여를 받는 원장, 친인척 취업 등을 거론했는데 이는 사립유치원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됐다”며 “대부분 원장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거나 손실을 개인재산으로 보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공교육에 편입된 이후 소유권만 유치원 설립자에게 있을 뿐 사유재산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며 “손실을 경영자가 책임지도록 각서를 작성해야 하며 건물 개·보수, 안전사고, 환경개선에 필요한 자금도 설립자 몫이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시민모임)은 “시민모임에 제보된 감사자료를 인용한

것은 교육청의 유치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촉구하기 위한 차원이었는데 본말이 뒤바뀌어 유감”이라면서 “유치원 원장들의 급여는 국민 알 권리 차원의 문제라고 판단해 공개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공익제보자를 보호하지 않고 소명 자료를 요구하는 시교육청이 질타를 받아야 한다”며 “시교육청을 상대로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지난달 30일 “광주시내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원장에게 국립대 총장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고 친인척을 채용해 부적절한 급여를 지급하는 등 납득하기 힘든 급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 광주시교육청 청렴 시민감사관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같이 밝혔다. 시교육청은 양측이 감사 사안을 문제 삼자 난감해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교육청에서 감사자료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았음에도 논란이 돼 당혹스럽다”며 “법적으로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급여에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급여체계 운영을 권고하는 등 개선 노력을 했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지진 날땀 이렇게 튀르키예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지진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9일 오전 광주 북구청 직강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지진 대응 안전훈련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전남 지난해 최악 가뭄 ‘역대 2위’

강우량 896.3mm로 평년의 64.6% 그쳐... 현재도 가뭄 ‘경계’ 단계

광주·전남지역의 최근 1년 누적 강우량이 역대 두 번째로 적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9일 발표한 2월 가뭄 예·경보 및 국가가뭄통계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광주·전남지역 강우량은 896.3mm를 기록했다. 평년에 비해 64.6%의 비가 내린 데 그친 것으로, 이는 1995년 2월(848mm) 이후 두 번째로 적은 강우량이다.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최근 6개월 간 기록을 보더라도 광주·전남 강우량은 평년의 66.8% 수준인 395.5mm에 불과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9일 현재 광주와 13개 전남 시·군에 생활 및 농업용수 가뭄 ‘경계’ 경보를 발령한 상태다. 가뭄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나뉘는데, 경계 단계의 경우 수자원 시설 및 하천에서 생활 및 농업용수 확보에 일부 제약이 발생하거나 우려돼 공급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 발령된다. 오는 4월 영농기 농업용수가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광주·전남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은 80%로, 모내기 철인 5~6월 이후까지 가뭄이 지속될 경우 농업용수가 부족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농업용수 가뭄과 관련해 나주시·신안군·함평군·장성군 등 4곳에 ‘관심’ 단계, 담양군에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다만 정부는 오는 4월까지 광주·전남 강우량이 평년 수준으로 회복하고 나면, 4월 이후로 가뭄도 점차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광주·전남 지역의 물 절약 실천과 도시 지역 먹는 물 기부 참여 등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 조금만 더 힘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며 “정부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물 부족 예상 지역 급수 확대 등 가뭄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

광주 개나리 3월 22일·진달래 25일 핀다

올 봄은 대체로 평년만큼 따뜻해 광주·전남의 경우 개나리와 진달래 등 봄 꽃 개화시기는 지난해보다는 늦지만 평년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 기상정보회사 ‘153웨더’는 올 봄 광주지역 기온은 평년(1991~2020년)만큼 따뜻할 것으로 예보하고 봄의 전령인 개나리와 진달래 개화시기도 평년수준으로 예상된다고 9일 밝혔다. 올 봄 광주의 개나리 개화시기는 오는 3월 22일로, 평년 꽃 피는 시기(3월 21일)보다 하루 늦어질 것으로 관측했다. 지난해 개나리 개화 시기(3월 14일)보다는 8일 늦은 것이다. 진달래 개화시기는 3월 25일로, 평년(3월 27

일)보다 이를 일찍 핀 전망이다. 지난해(3월 24일)보다는 하루 늦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수에서는 개나리가 3월 20일 개화하고 진달래는 하루 뒤인 21일 핀 것으로 내다봤다. 2~3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북쪽의 찬 대륙고기압이 일시적으로 확장하면서 잠시 ‘꽃샘추위’는 있겠지만, 올 봄 광주·전남의 기온은 평년수준으로 따뜻할 것으로 예측했다. 일반적으로 봄 꽃의 질정시기가 개화 이후 1주일이라는 점에서, 광주·전남에서는 3월 하순께 만개한 봄 꽃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 북구, 튀르키예 대지진 성금 모금

대규모 참사가 발생한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돕기 위해 광주시 북구가 팔을 걷어붙였다. 북구는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돕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28일까지 구호성금을 모금한다고 9일 밝혔다. 모금에 동참을 원하는 주민은 북구청이나 대한적십자사 전용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성금은 현지에서 긴급 구호·복구 활동, 이재민을 위한 임시 보호

소 운영, 의료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대참사가 발생해 너무 안타깝다.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남매가 구조를 기다리는 모습, 아버지가 팔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 등을 언론보도를 통해 접하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꼈다”며 “우리 전 직원 및 구민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조금이나마 아픔을 나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징역 30년·추징금 769억 선고

‘라임 사태’ 주범으로 재판을 받다가 도주했던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 354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수원여객 등 여러 회사의 횡령·사기 피해금액이 1258억원에 이른다고 판시했다. ▲수원여객 206억원 ▲스타모빌리티 400억 7000만원 ▲재향군인상조회 377억 4000만원 ▲스탠다드자산운용 15억원 등 회사돈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연합뉴스

세액공제, 답례품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기부하고 혜택 받는
고향사랑 기부제
남원시를 응원해주세요
남원에 기부하여 혜택받고, 내고향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 !!**

쉽고, 편리하게
남원을 사랑하는 마음, “**고향사랑 e음**”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www.ilovegohyang.go.kr

고향사랑 e음
1인당
500만원 한도

상품/서비스

- 기부현황 >
- 내계좌관리 >
- 답례품 고르기 >
- 기부금 사용용도 >

문화의 남원
미래산업도시 http://www.namwon.go.kr